

전남도, SNS 소통 빛났다...3개 대회 석권 ‘역대 최다’

‘올해의SNS’ 블로그 대상·유튜브 최우수
‘소셜아이어워드’에서도 3개 부문 휩쓸어
‘대한민국 SNS 대상’ 최우수상까지 영예

전남도가 올해 소셜미디어 트렌드를 반영한 참신한 콘텐츠로 도민과의 소통에 주력하며 SNS 관련 국내 최고 권위 3개 대회에서 6개 부문을 휩쓰는 등 역대 최다 수상 성과를 거뒀다. 전남도는 26일 “올해 국내 대표적 SNS 어워드 3개 대회에서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6개 부문을 석권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날 “2025 올해의 SNS”에서 광역자치단체 블로그 ‘대상’과 유튜브 ‘최우수상’을 받았다.

‘올해의 SNS’는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에서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후원하며 SNS 미디어 플랫폼 활용 현황을 평가해 국민과 활발히 소통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선정·시상하는 행사다. 앞서 지난 7월엔 ‘소셜아이어워드 2025’에서 광역자치단체 블로그 ‘대상’, 유튜브·인스타그램 ‘최우수상’에 이어, 10월에도 ‘2025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국내 최고 권위 3개 SNS 어워드에서 모두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도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쉽고, 재밌고 트렌드하게 콘텐츠를 제작해 블로그, 유튜브 등 7종의 SNS 매체를 운영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전남도 블로그는 콘텐츠 기획력, 생활 밀

착형 카드뉴스, 여행·복지·안전 정보를 담은 트렌디한 콘텐츠, 100명의 SNS 서포터즈가 제작한 매일 2-3건의 현장 중심 기사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독자 12만여명을 보유한 ‘전남도 유튜브’는 핵심 정책을 간결하게 소개하는 ‘정책 1분컷’, 데이터를 활용한 ‘전남 순위 TOP5’ 등에서 총 483만 조회수를 기록해 주목을 받았다. 또한 흑백요리사 우승자 나폴리맛파이가 전남지역 맛집을 탐방하는 ‘맛부심 시즌2’도 총 조회수 367만회를 달성하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김규용 전남도 대변인은 “올해는 SNS를 통해 도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결과 좋은 성과가 있어 뜻 깊다”며 “앞으로도 소셜미디어 트렌드를 반영한 참신한 콘텐츠로 전남의 매력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전남도가 올해 국내 대표 SNS 어워드 3개 대회에서 6개 부문을 석권하며 역대 최다 수상 성과를 거뒀다. 사진은 ‘2025 올해의 SNS’ 수상 플래카드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는 전남도 대변인실 공무원들. <전남도 제공>



AIoT 국제전시회 광주특별관 운영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인공지능·사물인터넷 전시인 ‘2025 AIoT 국제전시회’에서 내·외빈들이 광주특별관을 찾아 설명을 듣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겨울철 4개월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9곳 CCTV 단속 적발 부과료 10만원

광주시가 12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4개월간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운영하고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간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되는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줄여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 수도권과 광주시를 포함한 6개 특·광역시에서 ‘미

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2021년부터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이 예측될 경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시행해왔으며, 제5차 계절관리기간부터 예방적 조치 차원에서 상시 시행했다. 그 결과, 광주지역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 26㎍/㎥에서 지난해 14㎍/㎥으로 46% 이상 감소했다.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단속은 광주지역 주요 도로 9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통해 실시하고 적발되면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카메라 위치는 ▲동구 남문로(월남동 호반베르디움 건너편) ▲서구 무진로(유촌동 무진로우체국 옆) ▲남구 서문대로(송하동 효천역 건너편) ▲북구 동문대로(각화동 문화사거리) ▲북구 북문대로(운암동 문화예술회관 건너편) ▲광산구 상무대로(신촌동 송정장례식장 앞) ▲광산구 하남대로(월곡동 광산고용복지센터 앞) ▲광산구 북문대로(신창동 산월IC 부근) ▲광산구 무진대로(소촌동 소촌산단 출구)다. 계절관리기간 적발되더라도 2025년 9월30일까지 저감장치 부착, 조기 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기수희 기자

“전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금 사용하세요”

내달 15일까지 미사용시 소멸

전남도는 26일 “2025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오는 12월15일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지원금 전액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임산부, 난임부부, 영유아 4천80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사업비는 도비 약 5억원을 포함해 23억원 규모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서 2024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산모나 신청일 현재 임산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양육가정이다. 1인당 연 48만원

상당(자부담 9만6천원 포함)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한다. 공급 품목은 친환경인증 받은 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등 100여종이다. 사업 대상자가 기호에 따라 개별 상품이나 완성형 꾸러미를 남도 장터 쇼핑몰에서 구매하면 거주지까지 직접 배송해준다. 미사용 잔액은 아월이 불가능해 자동 소멸된다. 김영석 친환경농업과장은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통해 도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아직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이 있는 대상자는 기한에 전액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시원 기자

광주보건환경연구, 김장철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6일 “김장철을 맞아 서부·각화 농산물도매시장과 대형마트, 로컬푸드직매장 등에서 유통 중인 농산물을 대상으로 12월19일까지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 검사 대상은 배추·무·갓·파 등 김장에 주로 사용되는 농산물로 다이아지는 등 345개 항목의 잔류농약 검사가 이뤄진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내려지면 해당 농산물은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에 따라 즉시 압류·폐기에 유통을 차단한다. 또 관할 행정기관에 도매시장 출하 제한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요청할 방침이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서부·각화농(수)산물 검사소는 올해 1월부터 11월 현재까지 4천60건의 유통 농산물을 검사했으며 이 중 85건(2천618㎏)의 부적합 농산물을 적발, 전량 폐기에 시중 유통을 막았다. /기수희 기자



광주 안의 유일한



천환경 수목장

✓아름다운 자연

✓365일 관리

✓가족구성 가능

✓사용기한 없음

✓전문 이장

✓광주시청 20분

수목장 · 묘지 이장 · 장례

상담: 062-449-4446